

美 금리인하 예고에 금 매력도 ↑ 온스당 2300달러 전망 ‘지배적’

中 수요, 지정학 리스크 등 영향
지난 1일 장중 2300달러선 육박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이어질 것”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연말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8.70달러(0.84%) 상승한 온스당 2257.1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전날 기록한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면서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금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7.7% 상승했고, 3월 상승세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약 13% 급등했고, 올해 들어 9% 이상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금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장(9만8470원)보다 1.39% 오른 9만98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에서 올해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금리 인하로 채권 등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금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 장기화와 중국의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가파른 조정으로 인해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서 금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금 소매 수요는 지난 1월 271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에도 127톤으로 장기 평균(118톤)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 은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량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도 금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하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치열하게 금을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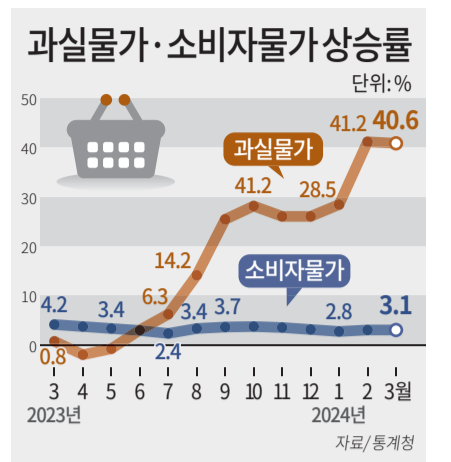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 고려시 금 가격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며 “경기 둔화와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 미 달러 약세 가능성 등 금 가격에 우호적인 매크로(거리경제) 환경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금값이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올해 평균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090달러에서 218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3%대... 신선과실 40% ‘폭등’

통계청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최상목 “농축산물 할인지원 강화”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이 90%에 근접하는 등 농산물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7월(2.4%)과 올해 1월(2.8%)을 제외하고 9개월치 중 7개월치가 3% 선을 넘게 됐다.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2월(3.1%), 3월(3.1%)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전년 대비 무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2개월째 4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농축산물은 11.7% 오르며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만 따지면 20.5%에 달했다.

특히 사과·배 가격이 각각 88.2%, 87.8% 급등했다. 이는 각각의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석유류 값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2% 상승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개인서비스 물가는 3.1% 올랐

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8%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 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 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가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전자, 실적개선 기대감... 종가 8.5만 마감

3년만에 '10만전자' 사정권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

2일 삼성전자 주가가 딱 3년만에 8만 5000원 고지에 올라 '10만전자' 사정권에 들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66%(3000원) 상승한 8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18조원 가량 늘어나며 장마감 기준 507조 43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이후 약 3년만에 500조원을 넘어 서며 코스피 시총(2248조 784억원) 대비 22.57%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5일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72조 5453억원,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7.61% 증가한 5조 17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는 상황이 이



여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주가를 부양할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03% 오른 10만 2000원으로 상향해 발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0만 70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분기 매출은 5개 분기 만에 7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대차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감소 효과

가 본격화하면서 D램과 낸드 등의 가격이 올라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흑자로 돌아선 디램과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낸드와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해 D S부문 실적에 플러스가 될 전망”이라며 “메모리 업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비메모리가 여전히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의 지나면서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2023년 파운드리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최대 수주 달성 및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9% 증가한 74조 1000억원,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5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해 망사용료 개정안 통과 '0전'

>> 1면 '美, 韓 망사용료...'서 계속

반면 CP들은 국내 국내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등 자국 ISP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데다 해저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망을 구축한 회사가 없어 미국 기업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망 사용료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해저케이블 설치 등 큰 비용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두 회사가 협의하면서 분쟁

은 일단락됐다. 이와함께 미국 아마존이 소유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지난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담을 문제로 꼽으며 국내 시장서 철수했다.

이처럼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사용료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의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국회 과거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망 사용료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